

‘어디, 어느, 어떤’에 대한 의미 고찰 및 중국어와의 대응 표현

진 설 매

Abstract

Chen, Xuemei. 2013. 02. 28. **A Contrastive Study On The Meaning About Korean interrogative ‘어디, 어느, 어떤’ And its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Chinese.** *Bilingual Research* 51, 247-267.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meaning of Korean interrogative ‘어디, 어느, 어떤’ and its corresponding relations with the Chinese expression. Chapter 2, 3 and 4 examines the usage of ‘어디’, ‘어느’, ‘어떤’ respectively, and chapter 5 concludes the paper. The study finds that Korean wh-word and Chinese wh-word can not only be used in interrogative sentence but also be used in declarative sentence. This paper further suggest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Korean ‘어디, 어느, 어떤’ with its Chinese expressions. ‘어디’ can be translated as ‘*nar, nali, naneng, zenneng, nayou, shenme*’. And Korean interrogative ‘어디’ can be used in declarative sentence with ‘어디+noun’, however Chinese interrogative ‘*nar, nali*’ can not be used with ‘*nar/nali+noun*’. ‘어느’ is generally translated as ‘*na+quantifier+noun*’, ‘*shenmechengdu, duoshao, duo+adjective*’ in interrogative sentences, but it has a correspondence with ‘*yi+quantifier+noun*’, ‘*yidingchengdu*’ in declarative sentences. And ‘어떤’ is generally translated as ‘*na/shenme+yangde+noun*’, and ‘*shenme+noun*’, ‘*na+quantifier+noun*’, ‘*yi+quantifier+noun*’. (Yonsei University)

【Key words】 ‘-어디(where)’, ‘-어느(which)’, ‘-어떤(how)’,
‘의문사(interrogative)’, ‘대조 연구(contrastive study)’,
의미적(meaning)

1. 들어가는 말

일상생활에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항상 질문을 제기하며, 그러한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구에는 의문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한·중 의문사에 대한 대조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¹⁾ 최현배(1929/2004)에서 대명사를 사람 대이름씨와 몬 대이름씨로 가르고, 대이름씨는 다시 그 가리키는 대상을 따라 ‘일문-곳-쪽’의 세 갈래를 세우며 ‘어느 것, 어디, 어느 쪽, 어떤 것, 어떤 쪽’으로 예를 들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어디’는 대명사로 기술하며 ‘어느’와 ‘어떤’은 관형사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표현은 ‘哪’라고 할 수 있는데, 申韓大辭典(1995)에서 ‘哪’는 대명사이며 ‘어느, 어떤, 어디’의 뜻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사전에서 ‘어디’는 중국어 ‘哪兒, 哪裡, 哪’로 번역하며, ‘어느’는 ‘哪, 哪個’로 번역하고, ‘어떤’은 중국어 ‘哪樣’로 번역하고 있다. 사전만 보면 한국어 ‘어디, 어느, 어떤’은 간단하게 중국어 ‘哪’계 의문사와 대응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는 그나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어 의문사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학자에 따라 의문사의 분류 체계가 다양하다. 邢福義(2002)에서는 의문사를 ‘誰’류, ‘什麼’류, ‘哪’류, ‘幾’류, ‘多’류, ‘怎’류로 분류한다. 朱德熙(1982)에서는 의문사를 ‘誰, 什麼’류, ‘哪, 哪兒, 哪裡’류, ‘怎麼, 怎麼樣’류로 분류한다. 現代漢語(2007)에서 중국어 의문사는 의문대명사, 의문술어, 의문부사로 분류하며 ‘哪, 哪兒, 哪裡’는 의문대명사로 분류되어 있다.²⁾

1) 지금까지 한국어의문사에 관한 연구들은 의문사 또는 부정사로서의 기능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문사와 의문문에 대한 개별 연구는 비교적 많지만 대조 연구가 많지 않다. 한·중 의문사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 李吉子(2002), 河晰蘭(2005), 전송애(2008) 등이 있다. 李吉子(2002), 河晰蘭(2005)은 중국어 ‘什麼’와 한국어 ‘무엇’을 대조 연구하였고 전송애(2008)는 중국어 ‘誰’와 한국어 ‘누구’를 대조 연구 하였다.

한국어에서 ‘어디’와 ‘어느, 어떤’은 서로의 품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해석할 때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보이는 것이다.³⁾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문사 ‘어디, 어느, 어떤’을 사전에서 제시한 의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예문들을 고찰하며 이 세 단어가 중국어에서의 대응된 표현을 검토함으로써 서로의 대응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 상대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어디’

‘어디’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어디’에 대한 기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문문에 쓰여 잘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둘째, 가리키는 곳을 굳이 밝혀서 말하지 아니할 때 쓰는 지시 대명사; 셋째,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

2) 現代漢語(2007:20)按句法功能把代詞分爲代名詞, 代謂詞, 代副詞. 按作用劃分爲三大類: 代替人或事物的人稱代詞; 表示疑問的疑問代詞; 以及指稱或區別人、事物、情況的指示代詞. 疑問代名詞有誰、什麼、哪、哪兒、哪裡、多會兒、幾、多少. 疑問代謂詞有怎樣、怎麼、怎麼樣. 疑問代副詞有多.

3) ‘어디’는 지시 대명사이며 ‘어느, 어떤’은 지시 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루는 이유는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어디’가 뒤에 처소 명사와 같이 쓰인 경우, 또 ‘어디까지나’의 꼴로 쓰인 조금의 여지도 없는 정도를 의미한 경우에는 ‘어느’와 유사한 의미 기능이 보이고, 또 ‘어느’가 선택의문사로서의 용법으로는 후행명사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 또는 출신지를 묻는 경우에는 ‘어디’와 유사한 의미 기능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일상 언어에서 ‘어떤’은 본래의 의미인 대상의 상태나 성격 특성을 묻는 의문사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선택의문사로서의 사용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어디, 어느, 어떤’은 중국어로 해석할 때 ‘哪’와 긴밀한 대응관계가 있다. 학자에 따라 의문사의 분류가 다양하지만 ‘哪, 哪兒, 哪裡’를 같이 보는 것은 언어학에 잘 알려져 있다.

4) 논의의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세 사전 중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을 제시한다.

거나 꼭 집어 댈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넷째, 주로 ‘어딘가’, ‘어딘지’ 꼴로 쓰여 무엇이냐 말하기 어려운 점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다섯째, 반어적 의문문에 쓰여 수량, 범위, 장소 따위가 아주 대단함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여섯째, ‘어디까지나’ 꼴로 쓰여 조금의 여지도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2.1. 의문(疑問)용법

‘어디’가 의문문에 쓰여 잘 모르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⁵⁾

(1) 학교가 어디냐?

學校在哪兒/哪裡?

(2) 돈을 어디다 숨겼지?

把錢藏哪兒/哪裡了?

예문(1)은 학교가 있는 장소를 물어보며 예문(2)는 돈을 숨긴 장소를 물어본다. 한국어 의문사 ‘어디’가 잘 모르는 장소나 위치를 가리켜 물어볼 때, 중국어로는 ‘哪兒’나 ‘哪裡’를 쓴다. 현대중국어에서 ‘哪裡’는 주로 글말에서 사용하며 ‘哪兒’는 주로 입말에서 사용한다.

2.2. 부정(不定)용법

남기심(2005:385)에서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의문대명사 ‘어디’가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에 쓰이게 되면 부정대명사가 된다고 하였다.⁶⁾ 다음

5) 본 연구에 나온 예문들은 주로 <http://krdic.naver.com> 에서 나온 예문이다.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 시간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한다.

은 ‘어디’가 평서문에서 쓰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3) 어디 가 볼 데가 있다.
有一个地方要去.
- (4) 나 어디 좀 다녀올게.
我去去就回來.

위의 예문에서 ‘어디’는 어느 곳을 정했지만 굳이 가리키는 곳을 밝혀서 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표현을 보면 ‘어디’를 ‘哪兒, 哪裡’로 쓸 수 없으며 예문에서처럼 생략하여 표현한다.

- (5) 겨우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어디 나가고 없었다.
好不容易才找到她家,她卻去哪兒(/哪裡)了,不在家.
- (6) 우리 어디 가 술이나 한 잔 합시다. (출처 : 이병주, 행복어 사전)
我們去哪兒(/哪裡)喝一杯.

예문(5)는 화자가 그녀가 간 곳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듣자니 간 곳을 알았지만 밝혀서 말하고 싶지 아니한 경우이다. 예문(6) 역시 술을 마시는 장소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지만 밝혀서 말하고 싶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哪兒’나 ‘哪裡’이다.

다음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꼭 집어 낼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이는 ‘어디’에 대해 살펴보겠다.

- (7) 어디나 다 정들면 고향이다.
有了感情在哪兒(/哪裡)都是故鄉.

6) 부정대명사는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없거나 잘 모를 때 쓰는 대명사이다.

(8) 네가 원하면 어디든 가도 좋다.

如果你願意, 去哪兒(/哪裡)都好.

위의 예에서 ‘어디’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아무 데나’, ‘아무 곳’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으로 ‘哪兒’, ‘哪裡’를 쓸 수 있다.

(9) 군중들의 모습은 처참하다기보다 마치 어디 공동묘지에서 귀신들이 끌려 나와 걷고 있는 것 같은 귀기가 풍겼다. (출처: 송기숙, 암태도)
這些群眾的面容, 與其說淒慘, 不如說就像從什麼公共墓地被拉出來遊走的鬼似的帶著鬼氣.

(10) 용술이 놈이 어디 다른 곳에다 이미 감쪽같이 수습을 해다 숨겨 놓고 있는지도 아직은 잘 짐작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출처 : 이청준, 춤추는 사제)

Youngsulee那傢伙在什麼地方已經神不知鬼不覺被收拾了還是藏起來了, 無法揣測.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어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함께 쓰여 꼭 집어낼 수 없는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 여기서 ‘어디’는 ‘어느’와 같으므로, 중국어 표현에서 ‘什麼’를 쓰지 ‘哪兒, 哪裡’를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어 ‘어디’는 뒤에 명사와 같이 쓰일 수 있지만 중국어 ‘哪兒, 哪裡’는 처소를 가리켜 단독적으로 쓰이며 뒤에 명사와 같이 쓰이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은 ‘어딘가’, ‘어딘지’꼴로 쓰여 무엇이랴 말하기 어려운 점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어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1) 그녀의 말은 나직했으나 어딘가 거절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출처: 윤후명, 별보다 멀리)

她的話音雖低, 但不知哪兒(/哪裡)帶著讓人無法拒絕的力量.

- (12)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었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궁색하고 초조해 있는 낮빛이다. (출처: 박경리, 토지에문보기)

雖然穿著整潔的西服, 但不知哪兒(/哪裡)還是窮酸急躁的樣子.

예문에서 ‘어디’는 추상적인 처소를 의미하며 항상 ‘어딘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중국어 표현 역시 ‘不知哪兒(/哪裡)’의 구조로 쓰인다.

다음은 ‘어디까지나’ 꼴로 쓰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13) 이 말은 어디까지나 농담에 불과합니다.

這些話不管哪樣只是些玩笑話.

- (14)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우리 회사의 의도는 아닙니다.

這些不管哪樣只是我的個人想法而已, 不是我們公司的意思.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로 쓰인 ‘어디’는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여지도 없이 철저함이나 완전함을 의미한다. 이때 쓰인 ‘어디’가 정도를 의미하는 면에는 ‘어느’와 유사한 용법이 보인다. 위의 예문에 쓰인 ‘어디’는 ‘哪樣’과 대응되며 ‘어디까지나’는 ‘不管哪樣’과 대응된다.

2.3. 반문(反問)용법

수사의문문이란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의미상으로는 강한 긍정이나 부정의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다음은 ‘어디’가 수사적 의문문에 쓰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

겠다.7)

- (15)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운단 말이나?
哪能在這兒這樣起哄?
- (16) 이렇게 공짜로 술 먹는 게 어딘가?
還有哪能這樣喝免費的酒呢?
- (17) 치열한 입시에서 5점이면 어디냐?
這麼激烈的入學考試,哪會有5分的?

예문(15)는 화자가 청자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한 비난, 질책, 야단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예문(16)은 ‘이렇게 공짜로 술을 먹는 곳이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서술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사의문문으로 화자의 태도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예문(17)은 화자가 입시에서 5점을 받는 것이 아주 대단함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사의문문을 써서 일반 서술법보다 화자의 태도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위의 예문들에서 쓰인 ‘어디’는 부정(否定),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수사의문문의 구조와 발화시의 어조를 통해 수량, 범위, 장소 따위가 대단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쓰인 ‘어디’는 중국어 표현 ‘哪’와 대응되며 또 뒤에는 항상 능원동사 ‘能, 會, 可, 要, 肯, 敢, 願意’ 등이 같이 쓰임을 볼 수 있다.

7) 허웅(1995/2000:525~773)에서는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한국어 의향법을 서술법, 물음법, 시김법과 함께법으로 나눈다. 그러나 의향법의 네 가지 아랫갈래는 저마다 일정한 꼴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제 형식에만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형식을 빌어서 제 뜻을 드러내는 일이 있으니, 이 현상을 ‘의향법의 뜻바꿈’이라 한다고 하였다. 수사의문문은 형식으로 물음법을 갖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들을이에게 어떠한 요구가 없이 자기가 말하려는 뜻을 나타내므로 서술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사의문문에 쓰인 ‘어디’를 의문문에 쓰인 경우와 달리 단독적으로 한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어느’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어느’에 대한 의미 기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둘째,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똑똑히 모르거나 꼭 집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룰 때 쓰는 말; 셋째, ‘정도’나 ‘만큼’ 따위의 명사 앞에 쓰여 정도나 수량을 묻거나 또는 어떤 정도나 얼마만큼의 수량을 막연하게 이룰 때 쓰는 말; 넷째, 뒤에 오는 명사에 ‘나/이나’, ‘든(지)/이든(지)’, ‘라도’ 따위의 조사가 붙어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룰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한·중 사전에서 중국어 ‘哪個’로 번역하고 있지만 앞2장에서 조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중국어 ‘哪’계 의문사들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3.1. 의문(疑問)용법

한국어 ‘어느’가 의문문에 쓰여 나타내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어느’가 의문문에 쓰여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18) 어느 것이 맞는 답입니까?

哪個是正確答案?

(19) 어느 그림이 좋을까?

哪幅畫好呢?

예문(18)은 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정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어느+것’의 구조로 쓰였다. 예문(19)은 여러 그림 중의 비교적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어느+그림’의 구조로 쓰였다. 이에 대응된 중

국어 표현은 ‘哪+個’, ‘哪+幅+畫’인데, ‘個’, ‘幅’은 각각 정답(正答), 그림(畫)의 양사이다.⁸⁾ 한국어에서는 ‘어느’ 뒤에 명사가 같이 쓰여 ‘어느+명사’의 구조로 표현되고, 이에 대응된 중국어에서는 ‘哪+양사+명사’의 구조로 표현된다. 그리고 중국어 ‘哪+양사+명사’는 예문(18)처럼 뒤에 명사가 생략되어 ‘哪+양사’의 구조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음은 ‘어느’가 ‘정도’나 ‘만큼’ 따위의 명사 앞에 쓰여 정도나 수량을 물어보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 낭떠러지가 어느 만큼 가파르더냐?

- a. 懸崖峭壁多陡?
- b. 懸崖峭壁陡到什麼程度?

(21) 주량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a. 酒量是多少?
- b. 酒量到什麼程度?

(22) 그의 이야기는 어느 만큼이 진실인지가 의심스럽다.

他的話多少是真實的值得懷疑.

예문(20)에서 쓰인 ‘어느 만큼’은 낭떠러지의 경사도를 물어보며 예문(21)에서 쓰인 ‘어느 정도’는 주량을 물어본다. 그리고 예문(22)는 간접의 문문이며 내포절에서 ‘어느 만큼’은 그의 이야기의 진실 정도를 물어본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什麼程度’나 ‘多+형용사’, ‘多少’이다.⁹⁾

8) 양사란 사람, 사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 혹은 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를 말한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사람을 셀 때 ‘명’, 종이를 셀 때 ‘장’ 등이 양사에 해당한다. 중국어에서 대표적인 양사로는 個(사과, 배, 곳, 것, 조건), 名(사람, 인물, 학생), 位(사람, 선생님, 교수, 사장님), 條(길, 바지, 목걸이), 副(안경, 그림, 장갑), 套(옷, 책(set)), 雙(장갑, 신발, 손, 발), 臺(텔레비전, 자동차, 연극)등이 있다. 이들 양사는 한국어 품사 명사에 속한다.

9) 중국어에서 ‘多少’는 의문문에 쓰여 수량을 물어보며 ‘多+형용사’는 정도를

3.2. 부정(不定)용법

다음은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똑똑히 모르거나 꼭 집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룰 때 쓰이는 ‘어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3)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那是一個下著雨秋天的夜晚.

(24) 어느 군인이 음식을 갖다 주었다.

一位軍人送來了食物.

위의 예문에서 ‘어느+명사’의 구조는 모두 막연한 ‘가을 저녁, 군인’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된 중국어 표현은 예문에서 보여주듯이 ‘一個秋天的夜晚, 一位軍人’인데, 직역하면 각각 ‘한 가을 저녁, 한 군인’이다. 이 경우의 ‘어느+명사’는 중국어에서 ‘哪+양사+명사’의 구조가 아니라 ‘—+양사+명사’의 구조로 표현된다.

(25) 몇 년 전 어느 결혼식장에서 본 광경이 되살아났다.

幾年前在哪個/(一個)婚禮上見過的場景再次浮現.

(26) 그때는 어느 괴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서웠다.

那時就像哪部/(一個)鬼片里的場景一樣恐怖.

(27)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출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경혜 저)

哪天我死了.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쓰인 ‘어느+명사’는 중국어에서 ‘哪+양사+명사’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多大(나이를 물어보는 표현), 多高(키를 물어보는 표현), 多寬(넓이를 물어보는 표현), 多美(아름다운 정도를 물어보는 표현), 多好(좋은 정도를 물어보는 표현), 多矮(작은 정도를 물어보는 표현)’ 등이 있다.

나 ‘-+양사+명사’와 대응된다. 예문(27)에서는 화자가 꼭 집어 낼 수 없는 미래를 말하여 ‘어느 날’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표현으로 ‘一天’ 혹은 ‘哪天’이 있는데, 하지만 ‘一天’은 과거 시간을 의미하고 미래 시간을 의미하지 못하므로 여기에서는 ‘哪+양사+명사’의 표현만 가능하다.

- (28) 어느 겨울에 비명 소리가 그쳐 있었다.
(不知)哪個時候/(什麼時候)哀鳴聲停止了.
- (29) 어느 사람이 그 고장난 기계를 고쳤다.
(不知)哪個人/(誰)把那壞了的機器修好了.

예문(28)에서 쓰인 관용구 ‘어느 겨울에’는 잘 모르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표현은 ‘什麼時候’나 ‘哪個時候’가 있다. 예문(29)에서 쓰인 ‘어느 사람’은 막연하게 이르는 것으로 중국어표현으로는 ‘誰’나 ‘哪個人’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시간과 사람에 쓰는 의문사가 따로 있으므로,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哪+양사+명사’의 표현 외에 ‘什麼時候’(시간), ‘誰’(사람)를 쓸 수 있다.

다음은 ‘어느’가 ‘정도’, ‘만큼’ 따위의 명사 앞에 쓰여 어떤 정도나 얼마만큼의 수량을 막연하게 이를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30) 돈을 어느 만큼 벌고 나자 다른 욕심이 생긴다.
錢賺到一定程度就會產生別的慾望.
- (31)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他的實力有了一程度的提高.

위의 예문에서 ‘어느 만큼’, ‘어느 정도’는 막연한 정도나 수량을 의미하며 중국어로는 ‘一定程度’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어느’가 ‘이나, 이든지, 이라도, 치고, 막론하고’ 따위의 앞에 쓰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2) 어느 것이나 네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

只要你喜歡 不管哪個帶走都好.

(33) 어느 부모라도 아이들에게 어른의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不管是哪個父母, 都不願給孩子看大人不好的一面。

위의 예문들에서 쓰인 ‘어느 것이나’, ‘어느 부모라도’는 ‘모든 것’, ‘모든 부모님’을 말하며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른다. 이에 대응된 중국어 표현은 ‘不管+哪+양사+명사’이다. 명사 뒤에 오는 ‘나/이나’, ‘든지/이든지’, ‘라도’ 따위의 조사들이 ‘不管’과 대응되며 ‘어느+명사’는 ‘哪+양사+명사’와 대응된다.

4. ‘어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어떤’에 대한 의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문에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둘째, 의문문에 쓰여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셋째,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때 쓰는 말; 넷째,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할 때 쓰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어떤’의 쓰임을 구체적인 예문에서의 의미에 따라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겠다.

4.1. 의문(疑問)용법

먼저 ‘어떤’이 지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 모양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쓰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4) 그는 어떤 사람이니?
他是哪(/什麼)樣的人?

(35) 너는 어떤 옷을 사려고 하니?
你想買哪(/什麼)樣的衣服?

예문(34)에서 쓰인 ‘어떤’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에 관한 내용이나 특성을 가리켜 물어보며 예문(35)에서 쓰인 ‘어떤’은 옷의 디자인이나 모양에 관한 내용, 특징을 가리켜 물어본 것이다. 여기에 쓰인 ‘어떤+명사’는 중국어에서 ‘哪/什麼+樣的+명사’의 구조로 표현된다.¹⁰⁾

다음은 ‘어떤’이 의문문에 쓰여 주어진 여러 가운데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6) 너는 이 둘 중에서 어떤 옷이 더 마음에 드니?
你在這兩樣中更喜歡哪件呢?

(37) 하나서부터 열까지 중에 너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니?
從數字一到十,你喜歡哪個數字?

위의 예문에서 쓰인 ‘어떤+명사’는 알아야 할 것을 지정하여 그 중에 대상이 되는 것을 물어보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哪+양사+명사’이다.

10) 중국어에서 ‘樣’은 종류의 양사이고 ‘的’는 조사(助詞)이며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된다.

박기선(2011)에는 ‘어느’와 ‘어떤’의 사용 양상 및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어떤’은 본래의 의미 기능인 대상의 특성을 묻는 의문사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선택의문사로서의 사용 경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은 ‘어떤+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8) 그 아이에게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을까?
- a. 給那小孩送哪本書做禮物好呢?
 - b. 給那小孩送什麼書做禮物好呢?
 - c. 給那小孩送(哪/什麼)樣的書做禮物好呢?
- (39) 살 빼는 데는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일까?
- a. 對減肥來說 哪種運動最有效呢?
 - b. 對減肥來說 什麼運動最有效呢?
 - c. 對減肥來說 (哪/什麼)樣的運動最有效呢?

위의 예문에서 ‘어떤’이 쓰인 자리에 ‘어느’가 함께 쓰일 수 있다.¹¹⁾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의미에 따라 대응되는 표현이 약간씩 달라진다. 예문(38)에서 쓰인 ‘어떤 책’을 대상이 되는 책이 어느 책인지로 해석할 때, 청자가 ‘이 책, 아니면 저 책으로 하세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a)처럼 ‘哪+양사+명사’이다. 만약 ‘어떤 책’을 책을 분류하는 종류로 해석한다면, 청자가 ‘동화 책, 소설 책, 만화 책’ 중 하나를 고르고 대답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b)처럼 ‘什麼+명사’이다. 또 만약 ‘어떤 책’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을 갖는 종류가 무엇인지를 가리켜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림이 많은

11) 박기선(2011)에서 현재 일상 언어에서 선택의문사 ‘어느’의 자리에 ‘어떤’이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을 선택하여 질문하는 빈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것'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c)처럼 '哪/什麼+樣的+명사'이다. 마찬가지로 예문(39)에서 쓰인 '어떤 운동'은 해당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고, 운동의 특성을 포함하는 운동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차이에 따라 '어떤+명사'는 중국어 '哪+양사+명사'와 대응되거나 '什麼+명사', '哪/什麼+樣的+명사'와 대응된다.

(40)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신다.

- a. 老師問我們對這次的活動有哪(/什麼)樣的想法.
- b. 老師問我們對這次的活動有什麼想法.

(41) 그녀는 서태호와 이 사나이가 어떤 흥정을 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 a. 她並不想知道西太后和這個漢子做了哪(/什麼)樣的勾當.
- b. 她並不想知道西太后和這個漢子做了什麼勾當.

위의 예문들은 간접의문이며 내포절에는 '어떤+명사'가 쓰여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켜 물어본다. 예문(40)에서 쓰인 '어떤 생각'은 구체적인 생각하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고, 또 크게 찬성하거나 반대할 생각인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별로인 생각인지 등을 가리킬 수 있다. 이처럼 '어떤'은 중국어 표현에서 (a)처럼 '哪/什麼+樣的+명사'로 쓸 수도 있고 (b)처럼 '什麼+想法'으로 쓸 수도 있다. 예문(41)도 마찬가지로 '어떤 흥정'은 흥정에 대한 내용이나 성격 특성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흥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哪/什麼+樣的+명사'이거나 '什麼+명사'이다.¹²⁾

12) 문법적으로 '哪/什麼+樣的+명사'와 '什麼+명사'는 사소한 의미 차이가 있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2. 부정(不定)용법

의문사 ‘어떤’도 ‘어디, 어느’처럼 부정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아니하거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정하여 가리킬 때 쓰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2) 나는 지난여름 홀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차 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다.

去年夏天我一個人去旅行, 在火車里遇見了一個女人.

(43) 옛날에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떤 관상쟁이가 명희를 보고 학상(鶴相)이라 말한 일이 있다. (출처: 박경리, 토지)

以前在父親還活著的時候, 一個看相的說姒熙是鶴相.

위의 예문에서 쓰인 ‘어떤+명사’는 ‘어느+명사’와 같은 용법으로 막연한 대상을 가리킨다. 중국어로는 ‘一個女人’, ‘一個看相的’로 표현된다. 이때 쓰인 ‘어떤+명사’는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44) 일전에 어떤 잡지에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日戰時期, 在哪本/一本雜誌上讀過那樣的報導.

(45) 때마침 다시 택시 한 대가 소리를 내며 우리 옆을 달려가더니, 바로 저만큼 어떤 건물의 출입구 앞에서 정차했다. (출처: 김인배, 방울뱀)

此時, 又一輛出租車啾啾的叫著從我們旁邊過去, 正好在像那樣的哪個/一個樓的出入口前停了下來.

그러나 위의 예문들은 화자가 가리키는 대상을 굳이 밝혀서 말할 필요가 없어서 ‘어떤 잡지’, ‘어떤 건물’이라는 식으로 쓴 것이며 중국어로는 ‘哪+양사+명사’나 ‘一+양사+명사’로 표현된다.

(46) 잠이 들려하는데 밖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剛想睡覺，聽見從外面傳來什麼奇詭的聲音。

(47) 동일한 범인의 소행이라면 두 개의 사건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했다. (출처: 정한숙, 고가)

要是同一個犯人所幹的，那應該有著什麼共同點。

위의 예문에서 ‘어떤+명사’ 표현은 가리키는 대상을 뚜렷하게 밝히기가 어려워져 쓰인 것인데, 이 경우는 ‘어느+명사’로 대체할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 쓰인 ‘어떤+명사’는 가리키는 것의 특성이나 내용을 이르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什麼+명사’이다.

마지막으로 ‘어떤’이 문장에서 ‘아/어도, 이든지’등과 같이 쓰여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룬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8)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화를 낼 것이다.

a. 這樣的情況 不管是誰都會發火的。

b. 這樣的情況 不管是哪個人都會發火的。

(49) 어떤 방법으로든 덮어놓고 그녀를 웃기고만 싶었다. (출처: 이호철, 소시민)

a. 不管什麼辦法，只想讓她開心。

b. 不管哪(/什麼)樣的辦法，只想讓她開心。

위의 예문(48)에서 ‘어떤 사람이라도’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나타내며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不管是誰’나 ‘不管是哪個人’이다.¹³⁾ 그리고 예문(49)에서 ‘어떤+방법’은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의미하며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什麼+명사’나 ‘哪/什麼+樣的+명사’이다.

13) 중국어에서는 시간과 사람에 쓰는 의문사가 따로 있으므로, ‘어떤 때’, ‘어떤 사람’은 ‘哪+양사+명사’의 표현 외에 ‘什麼時候’(시간), ‘誰’(사람)를 쓸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어 ‘어디, 어느, 어떤’의 의미 기능에 따른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고찰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어디’는 의문사의 용법, 부정사의 용법, 그리고 반어적 용법이 있다. ‘어디’가 뒤에 처소 명사와 같이 쓰인 경우, 또 ‘어디까지나’의 꼴로 쓰인 조금의 여지도 없는 정도를 의미한 경우에는 ‘어느’와 유사한 용법이 보인다. 또 ‘어디’는 반어적 수사의문문에 쓰여 부정,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어느’의 선택의문사로서의 용법을 보면, 후행명사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 또는 출신지를 묻는 경우에는 ‘어디’와 유사한 용법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일상 언어에서 ‘어떤’은 본래의 의미인 대상의 상태나 성격 특성을 묻는 의문사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선택 의문사로서의 사용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한·중사전에서 ‘어디’는 중국어 ‘哪兒, 哪裡’로 번역하고 있는데, ‘어디’가 의문사의 용법이나 부정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는 중국어 ‘哪兒, 哪裡’와 잘 대응되며 ‘어디까지나’의 꼴로 쓰인 경우와 수사의문문에서 쓰인 경우에는 중국어 ‘哪’와 대응된다. 또한 한국어 ‘어디’ 뒤에 장소 명사가 같이 쓰인 경우에는 중국어 ‘哪兒, 哪裡’와 대응하지 못하며 ‘什么’와 대응한다.

넷째, ‘어느’는 한·중 사전에서 중국어 ‘哪個’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어 ‘哪’와 대응되며 후행명사에 따라 양사를 선택하여 같이 쓰인다. ‘어느’는 기본 의미인 한정된 대상 중에서 선택할 것을 묻는 선택 의문사의 용법으로 중국어 ‘哪+양사+명사’와 대응되며 정도를 묻는 경우에는 ‘什麼程度’, ‘多少’나 ‘多+형용사’와 대응된다. ‘어느’는 부정사의 용법으로 대상을 똑똑히 모르거나 꼭 짚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룰 때 쓰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어 ‘—+양사+명사’나

‘哪+양사+명사’와 대응되며 어떤 정도나 얼마만큼의 수량을 막연하게 이를 때, ‘一定程度’와 대응된다. 그리고 ‘어느’ 뒤에 나타난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誰’와 대응할 수 있으며 뒤에 나온 명사가 ‘때나 시절’인 경우에는 ‘什麼時候’와 대응할 수 있다.

다섯째, ‘어떤’은 사전에서 중국어 ‘哪樣, 什麼樣’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어떤’은 중국어 ‘哪/什麼+樣的+명사’나 ‘什麼+명사’의 구조로 대응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정사의 용법으로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때 쓰인 ‘어떤+명사’는 ‘—+양사+명사’만 대응된 경우가 있으며 ‘哪+양사+명사’, ‘什麼+명사’와 대응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뒤에 나타난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誰’와 대응할 수 있으며 뒤에 나온 명사가 ‘때나 시절’인 경우에는 ‘什麼時候’와 대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언어 자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어디, 어떤’을 기준으로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이나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기고 본 연구가 한국어 또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김광해(1983). 국어의 의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12호; 101쪽~136쪽
 김송애(2008). 중국어 ‘什麼’와 한국어 ‘무엇’의 대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국립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박기선(2011). ‘어느’와 ‘어떤’의 사용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6호; 한국어 의미학회, 149쪽~180쪽
 박용진(2008). 중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중국어 의문사의 순서배열 연구 (1), <중

- 국어문학논집> 제4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161쪽~194쪽
- 박용진(2008). 중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중국어 의문사의 순서배열 연구 (2), <중국어문학논집> 제50호; 중국어문학연구회, 123쪽~148쪽
- 서정수(1989). 물음말과 부정사, 『이혜숙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한신문화사;
- 서희정·홍윤기(2011).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의문문의 교육 내용-“무슨”-수사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21쪽~244쪽;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2).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장소원(1998). 국어 의문사 어휘의 실제적 용법 연구, 『언어』23-4, 한국어언어학회, 691쪽~707쪽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허웅(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 陳天序(2007), 基於集合概念的漢語疑問代詞非疑問用法研究, 北京語言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 黃伯榮, 廖序東(1991/2007).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 河晰蘭(2005). 韓國語疑問代詞‘누구’和漢語疑問代詞‘誰’的語法對比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來德強(2001). “哪兒”的非疑問用法, 河南大學研究生碩士學位論文;
- 李吉子(2002). 漢語‘什麼’和韓國語‘무엇’對比,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邢福義(2002).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 朱德熙(1980).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진설매(Chen, Xuemei)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20-71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10-6648-2846

전자우편: chenxuemei1008@hotmail.com

접수일자: 2012년 12월 17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12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17일